

주최:



공동주최:



지원 기관:



Национален фонд
„Култура“



후원 기관:



주불가리아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ulgaria

국제 페스티벌 „SOFIA MUSIC WEEKS“ 재단

문화부

소피아 특별시

국립 소피아 필하모닉

국립문화궁전

제 54 회 국제 페스티벌



2023.5.23 – 2023.6.30

콘서트

„사랑과 이별의 서사“

이건용, 게오르기 아르나우도프, 박윤경, 김은혜,

길석근, 김위연, 아센 아브라모프, 이복남

연주: 윤석만, 권용상, 김도현, 이지연, 김소엽,

타티아나 소콜로바, 크세니야 바칼로바, 마리나 하랄람보마,

바실 바실레프, 미로슬라브 디네프, 테오도라 아타나소바,

다니엘라 야네바, 엘레나 메하지이스카, 스빌렌 덴체프,

유리 니콜로프,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6 월 27 일 화요일 19:00 시

국립음악아카데미 „판초 블라디게로프“



„사랑과 이별의 서시“ 콘서트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

국제 페스티벌 „Sofia Music Weeks“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참석을 축하하며, 뜻 깊고 규모가 큰 음악적 축제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과 불가리아 동시대 작곡가들의 교류를 위해 의미가 크며 향후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지속적으로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서악회, 주불가리아대사관, 그 외에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도와주신 파트너와 지지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청중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통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만나고, 한국과 불가리아가 만나 그려내는 음악과 함께 하며 즐거운 감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칠 게오르기에프
국제 페스티벌 „Sofia Music Weeks“ 재단장



제 54 회 Sofia Music Weeks International Festival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음악으로 국제적 명성을 쌓은
Sofia Music Weeks에서 동서악회가 지속적으로 연주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공연은 다양한 색깔의 사랑을 주제로 창작된 음악들로 구성되며
한국과 불가리아 작곡가, 연주자, 무용가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콜라보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가리아 작곡가의 위촉 작품과 한국
작곡가의 작품, 한국의 전통 소리와 불가리아 성악가의 노래, 한국과 불가리아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앙상블, 한국 무용수와 불가리아 무용수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멋진 하모니는 양국 간의 음악적 교감과 예술 교류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음악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
가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
동서악회 회장

프로그램

이건용

„여름 정원에서“

가야금: 이지연

게오르기 아르나우도프

단소와 생황을 위한 노래

단소: 윤석만, 생황: 김소엽

박윤경

„가시리“

남자 소리: 김도현, 테너: 유리 니콜로프,

바리톤: 스빌렌 텐체프, 베이스: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카발: 바실 바실레프, 타악기: 미로슬라브 디모프

김은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십이지 중 „개“, „소“, „말“

첼로: 테오도라 아타나소바, 피아노: 다니엘라 야네바

길석근

판소리 춘향가에서 한 대목 „집장가“

남자 소리: 김도현, 장구: 길석근, 김은혜, 이복남,

국악타악: 윤석만, 피리 및 생황: 김소엽,

무용: 권용상, 크세니야 바칼로바, 마리나 하랄람보바

휴식

이건용

„사랑“, „밤길“, „겨울사랑“

바리톤: 스빌렌 텐체프, 소프라노: 엘레나: 메하지이스카, 피아노:

다니엘라 야네바

김위연

„해어화- 잠깐 사이의 사랑“

카발: 바실 바실레프, 25 현금: 이지연

타악: 미로슬라브 디모프, 피아노: 다니엘라 야네바

아센 아브라모프

대금과 타악기를 위한 „바람결에 속삭이는 나뭇가지“

대금: 윤석만, 타악: 미로슬라브 디모프, 무용: 권용상

이복남

25 현금, 첼로, 그리고 무용을 위한 „애가“

첼로: 테오도라 아타나소바, 25 현금: 이지연

무용: 크세니야 바칼로바, 마리나 하랄람보바

안무: 타티아나 소콜로바

작품에 대한 노트

1. „여름 정원에서“ (이건용, 2011)

이 곡은 가야금 연주자 정유경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이 곡에는 두 번의 여름 체험이 담겨있다. 2010 년, 파리에서 여름을 보낼 때,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 첫 구절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짧았던 우리의 힘찬 여름 빛“이라는 시구가 기억났다. 다음 해 여름에는 18 세기 조선 시대에 여름 별서로 쓰였다는,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담양 명옥헌에 갔었는데, 그곳의 여름은 조선조의 시인 정두경의 시조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곡은, 그 둘을 엮어낸 여름에 대한 송가라고 할 수 있다.

2. 단소와 생황을 위한 „노래“ (게오르기 아르나우도프, 2023 - 이 음악회를 위한 위촉곡)

3. „가시리“ (박윤경, 2020)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남자 화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고려 시대 (918-1392)의 고려가요 또는 고려속요 장르에 속하는 „가시리“에서 가사를 가져왔다. 고려속요가 하면 작자 미상의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는 시가로, 서양음악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민네징거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7 세기부터 15 세기까지의 노래들을 모아 출간된 „시용학악보“에 수록된 곡 가운데 „가시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을 완성했다. „위 증즐가 대평성대“ 후렴구에 이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1 행)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잇고
- (2 행) 날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 (3 행) 잡사와 두어리마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 (4 행) 설운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도셔 오소서

4.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십이지> 중 „개“, „소“, „말“ (김은혜, 2022 개작)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 따라 저마다의 „띠“를 가지고 있다. 12 동물 -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 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띠“는 상징적인 수호신을 통해 저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음악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며,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번 연주에서는 3 개의 띠를 선택하였다. 충성의 상징인 „개“는 반복되는 지속저음위에서 리듬과 선율이 반복되며, „풍요“의 상징인 „소“에서는 안정된 저음역의 화성과 함께 화성적 선율을 이어나간다. „추진력“의 상징인 „말“에서는 갤러핑 스텝으로 달리는 말의 모습이 끊임없는 증 4 도 관계로 표현된다.

5. „집장가“ (길석근, 2022)

„집장가“는 한국 전통 판소리 „춘향가“ 한 대목으로, 춘향이 엄형을 기다리는 순간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작가는 경기잡가로 된 이 부분을 재해석하여 경기도당굿 장단 (터벌림. 진쇠.발빠드레), 경기웃다리농악 장단 (칠채.육채)를 가지고 설장구 3 대를 사용하여 음량 및 음색면에서 확대된 편성으로 꾸미고, 다양한 가락들이 빚어내는 혼돈 속에서 춘향의 한을 그리고자 했다..

6. „사랑“, „밤길“, „겨울사랑“ (이건용, 2020)

„사랑“의 시인은 한국에서 80-90년대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의 위해 헌신하였던 문익환 목사님이다. 이 시에서 사랑이란 단순한 연애감정이 아니다. 분노와 사랑, 슬픔과 흥겨움, 선동적인 느낌과 서정성이 섞여있다. 격렬했던 시대의 사랑노래인 셈이다.

„밤길“은 여성시인 이승순의 시에 붙인 노래이다, 사랑의 감미로움이나 행복함을 노래하기 보다는 견뎌야 할 외로움과 막막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시이다. 음악은 이 시가 보여주는 섬세하고 그윽한 사랑의 마음을 그린다. 저항시인 고정희는 숫자는 적지만 사랑의 시도 남기고 있는데 „겨울 사랑“은 그 중 하나이다. 사랑의 황홀한 순간, 우리 마음은 활짝 열리고 땅도, 산도, 하늘의 별까지도 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 그 충일하고 황홀한 순간의 힘으로 우리의 길고 고단한 일상을 사랑가는 것이 아닐까? 음악은 시를 표현하고 있는 그 황홀의 정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7. „해어화 - 잠깐 사이의 사랑“ (김위연, 2020)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미인이나 기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아름다운 여인들, 특히 기생들의 삶은 일견 화려해 보이지만,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 고된 삶의 상황에 둘러 싸인 채, 잠깐동안 찾아왔다 떠나가는 덧 없는 사랑의 모습을 이 작품에 녹여보려 하였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곡의 중간부분은 짧지만 꿈 같은 사랑의 순간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그 들의 고된 삶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8. „바람결에 속삭이는 나뭇가지“ (아센 아브라모프, 2023 - 이 음악회를 위한 위촉곡)

9. „애가“ (이복남, 2006)

이 작품은 다양한 버전으로 자주 연주되는 특별한 곡이다. 25 현금과 첼로 버전으로 시작(2006년, 영국 런던 공연), 명지국제음악제에서는 25 현금, 거문고에 영상을 더했고, 같은 해 광주 연주에는 거문고 대신 다시 첼로가 등장했다. 영상에는 세계대전이나 유럽의 전쟁, 또는 한국의 전쟁 모습을 담았다. 이 곡을 쓰게 된 발단은 신문에서 우연히 보게 된 테러범이 진압된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었다. 테러범은 놀라움게도 평범해 보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여인들을 끔찍한 차에서 사건 속으로 몰아넣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고 이들이 비극적인 고통,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고통을 음악으로 공유하고 싶었다. 이 곡이 연주될 때 희생된 영혼들이 안식을 얻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세상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작품을 바친다.

음악적 구조는 명확하게 A-B-C-A'로 이루어진다. A 부분에서는 비탄의 동기를 통해 깊은 슬픔, 영혼의 아픔을 표현하였다. B 부분은 전쟁의 급박한 분위기, 긴장감들, 전쟁의 잔상들을 3개의 리듬 동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C 부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끔찍한 시련과 고통을 25 현금과 첼로의 거친 음향으로 표현하였다. 25 현금의 특수주법, 변박, 부딪히는 불협화음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노의 쇄사슬이 끊기고 아픔이 치유되어서 모두가 위로와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작곡가

이건용 (1947 ~)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1983-199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992 - 2013), 4 대 총장
역임(2002-2006), 청조근정훈장 수여 (2013)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2012 -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18~)

게오르기 아르나우도프 (1957~)



국립음악학교 교사 (1984 - 2000)
국제현대음악제 „뮤지카 노바 - 소피아“ (1993 ~)
뉴불가리아대학교 교수 (2000 ~), 부총장 역임 (2018
- 2022)

박윤경 (1974 ~)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 미국 럿거스 대학교 박사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출강

김은혜 (1956 ~)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 박사
1997-2022 수원대학교 교수 역임
2008 „국가 작곡가“ 상 수상

길석근 (1968 ~)



추계예술대학교 출강
우리가락연구회 회장
동서악회 부회장

김위연 (1974 ~)



마네스대학교 졸업
세계적 퓨전 앙상블 „공명“ 작곡가
드라마, 연극, 녹음 등 다수 프로젝트 참가

아센 아브라모프 (1961 ~)



국립연극영화아카데미, 뉴불가리아대학교 출강
극음악 250 곡, 발레 음악 3 곡, 영화음악 30 곡,
라디오 프로젝트 50 곡
극음악 관련 상 15 회 수상

이복남 (1965 ~)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 미국 럿거스 대학교 박사
(사) 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역임
명지대학교 교수
동서악회 회장

출연자



김도현- 민요 소리

동의대학교 교수
국악원 창단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경기잡가“ 이수자



윤석만 - 대금, 단소

국가무형문화재 제 17 호 봉산탈춤 이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권용상- 무용

세종대학교 교수
„춤다솜“ 대표



이지연 - 가야금, 25 현금

숙명 가야금 이사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출강



김소엽 - 생황, 피리

중요문화재 „피리“, „대취타“ 전수자
앙상블 „거꾸로 프로젝트“ 활동
앙상블 „TanEmotion“



유리 니콜로프 - 테너

바르나 오페라, 소피아 오페라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연주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 바리톤

카메르나 오페라 - 블라고에브그라드



스빌렌 덴체프 - 바리톤

베라 네미로바 마스터클래스
불가리아국립라디오 어린이합창단 솔리스트

엘레나 메하지이스카 - 소프라노



소피아 오페라, 루세 오페라 작품 출연
소피아필하모닉 성악 중창단 „BELLA VOCE“
2019 „올해의 음악가 상“ 노미네이트
다수의 페스티벌과 실내악 프로젝트에 참여

다니엘라 야네바 - 피아노



소피아국립음악원 강사
캐나다 „Gr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금메달
수상

테오도라 아타나소바 - 첼로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멤버
류보미르 피프코프 국립음악학교 교사

미로슬라브 디모프 - 타악



소피아국립음악원 강사

바실 바실레프 - 카발



플로브디프 국립예술원 강사

타티아나 - 안무



뉴불가리아대학교 강사
감독, 안무가

크세니야 바칼로바 - 현대 무용



무용가
뉴불가리아대학교 댄스 시어터 졸업

마리나 하랄람보바 - 현대 무용



무용가
뉴불가리아대학교 댄스 시어터 졸업

